

구윤철 부총리,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 기 살리기와 초혁신경제 전환에 총력 주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4일 (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영상연결)에서 기획재정부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對美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對美 협상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세계 1등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방향으로 매진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를 위한 핵심 아이টে을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기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①기업이 중심이 되어 앞장서고, ②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③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경제형별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곧 발표 예정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26년도 예산안 등에 최대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기재부의 불필요한 업무 최소화과 성과중심 업무추진, 직원들의 AI 활용도 제고, 적극적인 아이디어 논의 등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간부들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하계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현장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모든 사고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경찬 (044-215-2510)
		담당자	서기관	김형은 (wlhot32@korea.kr)

